

李朝中期 大學者이며 奇人

土亭 李之菡

天文·地理·醫藥·
算數에
능통



朴 星 來

(韓國의 국어大 敎수 · 科學史)

지금은 천하에 못믿을 미신처럼 여겨질 土亭秘訣이 옛날에는 그대로 우리나라의 科學水準을 되비쳐 준 것이기도 한데 土亭이 지은 秘訣이다.

해마다 정초에는 (土亭秘訣)을 보는 것이 상례이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수백년 동안 토정비결을 보고 때로는 기뻐하고 또 때로는 조심하며 살아온 것이다.

“동풍에 얼음이 녹으니 늙은 나무가 새 봄을 맞는도다”(東風解氷 古木逢春)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귀한 사람이 와서 도우리라”(東西 兩方 貴人來助) “달밝은 창가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리라”(月明紗窓 必逢佳人) 등등 <토정비결>에는 온갖 좋은 예언이 모두 등장한다.

그러나 하면 거기에는 또 좀 불길한 예언도 있고 혹은 조심하라는 경고도 섞여 있다. “나가보려하나 나가지지 않으니 이 운수를 어찌할까”(欲進不進 運數奈何) “여인을 가까이 마라 평생 구설수를 면하지 못하리라”(莫近女人 口舌終身) “어느 무엇보다도 우선 조심할지어다”(百事之中 慎之爲上)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이야 아무도 <토정비결> 같은 미신을 그대로 믿으려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민족의 의식구조에 미친 영향은 대단했고, 또 반대로 바로 우리의 의식구조가 그런 예언서를 발전시켜 주었다고도 할 수가 있다. 또 지금은 천하에 못믿을 미신처럼 여겨질 <토정비결>이 옛날에는 그대로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을 되비쳐 준 것이기도 하다.

<토정비결>은 제목 그대로 土亭이 지은 秘訣이다. 토정은 조선시대 중기의 대학자이며 奇人이었던 李之菡(1517~1578)의 號이다.

그는 고려말의 대학자 李穡의 6대손이다. 韓山 李씨라는 당대의 명문에서 태어났으며 일찌기 아버지를 잃고 그는 그의 형 李之菴의 밑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이며 스승 노릇까지를 맡아 해낸

센인 그의 형에게는 유명한 두 아들이 있었으니 李山海와 李山浦가 그들이다. 土亭의 조카인 李山海는 영의정을, 李山浦는 이조판서를 지낸 것이다.

李之菡은 벼슬로 말한다면 별로 보잘것이 없다. 늙으막인 56세 때에 천거받아 6품 벼슬을 지낸 것이 고작이었다. 이 때에 그는 抱川과 芽山の 현감을 지냈는데 그것도 모두 잠깐씩이었을 뿐이다. 그렇다고 그는 평생에 기념될만한 大作을 써서 남긴 것도 아니었다.

〈土亭集〉이라는 문집에 그의 글이 모아져 있기는 하지만 분량도 많지 않고 내용도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물론 〈土亭秘訣〉이 있지만 이 책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리 학술적이라 평가되지는 못했다.

李之菡은 보기에 따라서는 전혀 과학과는 상관없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물이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그를 빼고서는 한국과학사를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인물로도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는 徐敬德(1489-1546)과 더불어 조선시대 象數學의 대가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李之菡은 바로 花潭 徐敬德의 제자였다. 名技 黃眞伊의 전설로 더욱 유명한 徐敬德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主氣論 사상가이며 象數學의 대가였다.

栗谷 李珥는 바로 그의 주기론 사상을 계승한 셈이라면, 李之菡은 그의 상수학을 계승 발전시켰던 것이다.

象數學이란 이 세상의 근본적인 진리가 어떤 모양 또는 數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믿는 태도이다. 그것은 고대에서부터 동양·서양에 모두 존재했던 믿음이며 특히 數에 대한 신비주의적 믿음은 피타고라스학을 낳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宋代에 특히 발달하여 해와 달 등

徐敬德은 李朝時代의 대표적인 主氣論 사상가이며 象數學의 대가였다. 李之菡은 象數學을 계승 발전시켰고 李珥는 主氣論사상을 계승한 셈이다.

李之菡은 우주의 생성과 변화에 대한 관심을 花潭으로부터 계승받았고 〈토정비결〉은 이런 관심을 인간운명에 응용한데서 나온 산물이었다.

천체의 주기적 운동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가지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다. 우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과학과 미신을 넘나들며 크게 발달했던 것이다.

서경덕은 바로 이 전통을 이어 받은 학자였고 이지함은 서경덕으로부터 이에 대한 관심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土亭秘訣〉은 바로 이러한 관심을 인간운명에 응용한데서 나온 산물이었다.

〈토정비결〉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건 生年·生月·生日 등 세가지를 이용하게 되어 있다. 四柱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가운데 태어난 시간을 빼 나머지 세가지를 이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셋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 太歲數·月建數·日辰數 등과 보태고 각각 8·6·3으로 나누어 나머지 숫자로 해당 괘를 찾아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토정비결〉은 111번에서 시작하여 863번까지의 여러 종류가 나열되어 있다. 단 이 두 번호 사이의 모든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선 0이란 숫자는 어느 자리에도 없으며, 첫째 자리의 수는 8 이상이 없고, 둘째 자리는 6 이상이 없으며, 셋째 자리는 3 이상이 없다. 결국 〈토정비결〉에 나타나는 인간의 운세의 유형은 모두 144종류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145명만 있다면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일년 신수가 똑같은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수10억이나 되는 인류의 운명이 겨우 144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비과학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4천 320만명으로 본다면 30만명씩은 모두 똑같은 일년 운수를 지고 산다니 참 괴이한 일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토정비결〉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미신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은 우리 조상들이 탐구하고 있던 수학적 질서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당시의 우리 선조들은 우주의 생성변화와 인간의 운명은 어떤 수학적 질서 속에서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지함은 그런 노력에서 큰 공헌을 남긴 학자였던 것이다.

이 예언서가 아주 교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이유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모든 예언은 알맞게 모호한 것이다. 너무 구체적인 예언은 항상 틀릴 가능성이 높으며 한번 틀리면 그 신빙성을 잃기 마련이다. 그러나 <토정비결>의 예언은 모두가 적당히 모호하며, 또 흔히 나쁜 예언도 빠져나갈 구멍을 갖게 되어 있다.

둘째로 더욱 중요한 특징으로 <토정비결>의 예언은 주로 희망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족하다. 여기에는 144장의 예언 하나에 각기 전체적인 운수에 관한 패가 13개 그리고 한달에 3 패씩 모두 36패가 배치돼 있다. 그러니까 144장의 각각에 49패씩이 있어서 <토정비결> 전체의 예언卦는 모두 7천 56패가 되는 셈이다.

이들 가운데 거의 80%가 좋은 운수(吉運)를 예보해 주고 있으며, 나쁜 운수(厄運)는 겨우 20% 남짓이다. 따라서 <토정비결>을 보고 실망할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고 80%가 일단 만족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실제로 나쁜 패를 얻은 사람은 불평할 지도 모르지만 좋은 패를 얻은 사람은 그렇게 떠버리지 않을 수가 많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막연히 <토정비결>이 좋게 나올 확률이 50%쯤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래저래 그것은 실제 이상의 만족도를 제공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토정비결>은 미신이라고 하겠지만 우리의 조상들의 數學的 질서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土亭은 麻浦에 土室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자고 낮에는 그 위에 올라가곤 했는데 그의 號는 바로 이 때문에 생긴 것 이라고도 전한다.

인간의 운명을 어떤 數的인 질서 속에서 이해해 보려는 태도는 수학적 神秘主義이다. 그런 신비주의는 피타고라스에서도 뚜렷이 나타났고 또 李之菡도 그런 입장에서 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타고라스의 신비주의는 곧 수학의 발달로 이어진데 반해 李之菡의 사상은 수학 자체의 발달에 이바지 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土亭은 기이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억된다. 특히 栗谷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에 대해서는 李珣 자신도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土亭을 존경했던가 짐작하게 한다. <토정비결> 이상으로 그의 생애는 이상한 일화로 가득차 있다.

이지함은 장사치를 깔보던 그 시대에 손을 대어 큰 돈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지방의 梟監을 지낼 때에도 그랬듯이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그는 장사해 번 돈을 빈민에게 털어주고 훌훌 떠나기가 예사였다는 것이다.

또 한번은 어느 섬에서 박 농사를 크게 지어 많은 바가지들 만들어 팔아서 돈을 만들어 그것을 밀천으로 麻浦에다 많은 흙을 운반해 높이 몇자나 되는 土室을 만들었다. 그는 여기서 자고 낮에는 그 위에 올라가곤 했는데 그의 號 土亭은 바로 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도 전한다.

이지함은 춤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더운 것등을 이기는 훈련을 쌓아 아주 참을성이 대단했던 奇人이기도 했다.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천문·지리·의약·산수 등 통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박학하였다. 重峰 趙憲(1544-1592)은 토정과 울곡을 그의 가장 존경하는 스승으로 꼽았다.

해마다 정초에 생각나는 우리 역사상의 뚜렷한 인물이 바로 土亭 李之菡인 것이다.